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31호

스포츠윤리센터징계정보시스템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비리·학폭 관리' 징계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이상철 뉴스1기자

프로입단대가로 뒷돈...안산그리너스FC전대표

'선수선발 비리' 안산FC 전 대표 구속심사... "선수, 팬에 죄송"

김상훈 MBC기자

체육계 구조적 병폐

"선수생활 끝...교수 말은 법"...체육계 병폐

화강윤 SBS기자

2023부다페스트세계육상선수권대회

최병광, 자격 얻고도 세계육상선수권 못 가...연맹, 소속팀 이견

하남칙 연합뉴스기자

연맹, 인권위 조사 진행되자 해당 규정 삭제

"여성 선수는 치마 착용하라"...모 스포츠연맹, 인권위 조사에 규정 삭제

이승령 서울경제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비리 학폭 관리' 징계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④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재발장지를 위해 체육계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대상은 체육회 등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으로 징계정보시스템 접속 후 개인이 직접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이은정 이사장은 "징계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라 체육단체 및 학교 운동부 내 비위행위 예방과 폭력근절 등 한층 더 인권 존중의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정보시스템은 10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11월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9월11일 서울, 12일 대전에서 체육단체 담당자, 교육부 산하 체육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징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수선발 비리' 안산FC 전 대표 구속심사.." 선수 팬에 죄송"

프로구단 입단을 대가로 뒷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걸 안산그리너스FC 전 대표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표와 배 모 전 전력강화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구단 차원의 조직적 공모가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물음에 "없었다"면서,
'선수와 팬들에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을 안산FC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에이전트로부터 현금
1천만원과 1천7백만 원짜리 고급 시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전 팀장도 스카우트 업무를 총괄하면서 입단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달 28일 에이전트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임종현 전 안산FC 감독과 전직 대학교 축구부 감독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단독] "선수생활 끝...교수 말은 법" ... 체육계 병폐 (D리포트)

지난 2019년 SBS가 최초로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쇼트트랙 조재범 코치의 성폭행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계 인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체육계의 1) 폐쇄성과 2) 2차 피해 우려, 그리고 3) 절대적인 지도자의 영향력 같은 구조적 원인들이 지적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끝까지판다팀이 만난 체조선수들의 입에서도 판박이처럼 드러났습니다. 선수들이 합숙 생활 같은 외부와 차단된 환경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문제 인식도, 문제 제기도 어려웠습니다.

[A 씨/한체대 출신 선수 : 이미 위에 선배들부터 쪽 그래 와서 알고 있어서...]

[B 씨/한체대 출신 선수 : 전에 있던 사람들이 (계약금 10%를) 다 내서 저희도 꼭 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도 좀 어렸던 것 같아요.]

문제를 제기해도 좁은 체육계에서 해결은커녕 되레 2차 피해를 입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C 씨/한체대 출신 선수 : 잘못된 걸 알고는 있는데 선불리 누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계속 운동을 앞으로 해야 되니까.]

[D 씨/한체대 출신 선수: 이게 바뀐다면은 할 말들도 조금 많이 있을 거 같은데, 항상 바뀌지 않아서 굳이 말을 안 했던 거 같아요. 내부 고발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시선만 있을 텐데.]

무엇보다 대회 출전부터 앞으로 인생 진로까지, 지도자 영향력이 절대적이기에 어떤 요구라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E 씨/한체대 출신 선수: 그냥 교수 말은 법이었어요. 법이죠. 아무도 달려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 낸다? 애는 그러면 아무리 운동 잘해도 그냥 팽 당하는 거죠. 그걸 안 내는 순간 자기 목숨은 끝인데.]

폐쇄적, 수직적인 환경이 대물림되면서 '싫어도 싫은 티'를 내지 못한 채 '자발적 기부'를 강요받아왔던 겁니다.

[김현수/전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스포츠계에서는) 피해자가 그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드러냈을 때 본인이 오히려 집단에서 배제당하는 그런 결과로 대부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병폐는 '메달'과 '국위선양'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문화에 있다며, 체육계의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계속 나왔지만, 변화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최병광, 자격 얻고도 세계육상선수권 못 가... 연맹 소속팀 이견

'한국 경보 간판' 최병광(32·삼성전자)이 2023 부다페스트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을 갖추고도 대한육상연맹과 삼성전자 육상단의 이견 때문에 6회 연속 세계육상선수권 출전이 불발됐다.

대한육상연맹과 삼성전자는 8일 "최병광이 2023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최병광의 출전 불발에 관한 연맹과 소속팀의 설명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대한육상연맹은 "연맹 내에 국가대표 경보 지도자가 있지만, 경보의 특성상 최병광과 훈련을 함께한 김현섭 코치가 세계선수권에도 함께 출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서 최병광의 소속팀에 '선수 컨디션 관리와 경기력 극대화 차원에서 현재 소속 지도자 파견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하지만 소속팀에서 코치 파견에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보는 9월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조금 더 주력하는 게 좋다는 연맹의 내부 판단도 있었다. 삼성전자 육상단도 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육상단은 "우리 소속팀 코치가 세계선수권에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을 최근에야 들었다. 여러 절차상 김현섭 코치를 세계육상선수권에 파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맹이 '선수만 세계선수권에 내보낼 수는 없다. 코치가 함께 가야 한다'고 알려와 결국 최병광 선수의 세계선수권 출전이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연맹과 소속팀이 굳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가대표 소속이 아닌 김현섭 코치의 '국제대회 출전을 위한 경비'를 어느 쪽에서 지불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도 양쪽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과 소속팀의 입장이 달라 선수만 애꿎게 피해를 봤다.

최병광은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남자 경보 20km 기준 기록(1시간20분10초)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랭킹 포인트로 출전 자격을 얻었다.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남자 경보 20km에는 총 50명이 출전하고, 최병광은 랭킹 포인트 34위로 꽤 넉넉하게 '기준선'을 통과했다.

최병광은 2013년 모스크바(38위), 2015년 베이징(45위), 2017년 런던(31위), 2019년 도하(21위), 2022년 유진(34위) 등 5회 연속 세계선수권에 출전했다. 부다페스트에서 6회 연속 세계선수권 출전도 노렸다.

한국 선수의 세계육상선수권 최다 연속 출전 기록은 김현섭 코치가 보유하고 있다.

김현섭 코치는 2007년 오사카(20위), 2009년 베를린(31위), 2011년 대구(3위), 2013년 모스크바(9위), 2015년 베이징(10위), 2017년 런던(26위), 2019년 도하(37위) 등 한국 육상 사상 최다인 '7회 연속 세계선수권 출전'의 기록을 썼다.

최병광은 "6회 연속 세계선수권 진출에 크게 얽매이진 않았다. 다만 이번에 김현섭 코치와 '새로운 방식'의 훈련을 이어가며 부다페스트에서는 예전 세계선수권보다 훨씬 나은 성적을 올릴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도전할 기회를 놓쳐서 아쉽다"고 했다.

이어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아쉽지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자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선수는 치마 착용하라" ... 모 스포츠연맹, 인권위 조사에 규정 삭제

여성 운동선수에게 대회 출전 시 치마를 입도록 한 규정을 신설한 모 실업 스포츠연맹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 중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인권위는 모 실업 스포츠연맹이 리그를 개최하면서 참가 요강에 '여자 선수는 치마를 착용하도록 한다'고 기재해 진정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피진정 기관이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사 중 해결' 됐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연맹은 여자 선수에게 대회 출전 시 민소매 상의 및 치마를 착용하도록 한 규정은 당초 리그 요강에 있지 않았지만 리그 경기를 TV에 방영하기로 함에 따라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은 해당 복장 규정이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앞으로 모든 스포츠 경기 대회가 성평등을 지향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개도국 선수단,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메달 도전 나서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8030171>

축구대회 나간 소방관, 심정지 선수 살려...MVP급 프로 정신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103446.html>

삼성생명,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 안세영 선수 격려 행사 개최

<https://www.news1.kr/articles/5133983>

완벽했던 류현진 조기 강판에...외신 "가장 불행한 선수일지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808000527>

'준우승' 김효주, '11위→7위' 세계랭킹 TOP10 복귀...한국 선수 다시 2명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8080119>

'공부하는 수영 선수' 김성주, 청두하계U대회 남자 배영 동메달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7046200007?input=1195m>

'세기의 격돌' 김연경·박인비·진종오, IOC 선수위원 도전장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92246635705024&mediaCodeNo=258>

프로배구 선수단에 '협박글'...KOVO, 경기장에 금속탐지기 설치

<https://www.news1.kr/articles/5133630>

"2억 벤츠 음주운전" 잡고보니 K리그 선수...수원FC '라스'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0717054071794>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